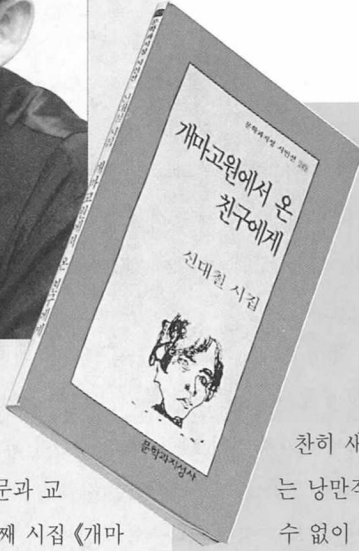


신대철 교수

문학과지성사/A5신/124면/5000원



## 곡절 많은 생의 체험에서 우러난 공존의 지혜

《개마고원에서 온 친구에게》 펴낸 신대철 교수

신대철 시인이 23년의 침묵을 깨고 두번째 시집을 펴냈다. 이번 시집에는 절망적인 가난의 상처, 군사분계선에서 사선을 넘나들었던 병영체험, 그리고 북극에서 확인한 민족적 자아가 다채롭게 변주되고 있다. 비극적인 생의 조건을 수락하며 자연과의 공존, 민족의 화해를 꿈꾸는 이 시집에서 적막한 침묵의 세월을 견디며 다져온 단단한 시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시인 신대철씨(55, 국민대 국문과 교수)가 오랜 침묵을 깨고 두번째 시집 《개마고원에서 온 친구에게》를 상재했다. 첫시집 《무인도를 위하여》(이상 문학과지성사)가 1977년에 출간됐으니 무려 23년 동안 그의 시는 적막한 세월 속에 잠겨 있었던 셈이다. 경박한 시들이 합부로 날뛰던 때 그의 시는 진득하게 세월을 견디며 세상과 살 부릴 날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저는 체험한 것들만 시로 표현해왔습니다. 첫시집에서 이미 개인적 체험을 어느 정도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시를 쓰려면, 삶과는 거리가 먼 소재나 기법에 의존하게 되더군요. 체험의 바탕이 없는 상상력은 공소할 뿐이죠. 그것은 관념이나 아이디어시로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생의 근원적 조건과 자연친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시가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은 아니었다. 체험이 어긋나서 뭉쳐서 말의 몸을 빌어 솟구쳐 나오려 할 때 그는 원고지를 붙들었다. 이렇게 한두 편 쓴 시들이 모여 어느새 2백편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그는 이 시들을 지면에 발표하지는 않았다. 주로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그의 시의 첫번째 독자이자 냉정한 비평가였다.

그는 자연 친화적인 시세계를 일군 시인으로 평가받아왔다. 두권의 시집을 일별해보면 그의 시가 자연에 빗줄을 대고 있음을 감지해낼 수 있다. 하지만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그의 시를 찬

찬히 새겨 읽다보면 자연과 합일하려는 낭만적 기풍이 아니라 자연과 어쩔 수 없이 대립하거나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생의 조건이 아프게 자리잡고 있다.

그를 품고 있는 자연은 때로 “영혼이 머무는 자리에 사람 하나 가둬놓고, 담금질하고, 사람이 사람을 향해 가는 실오라기 같은 길, 잘리고 잘리면 물이 이어이어 흐르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길”을 만들고, “평지 끝에서 산속으로 쫓겨 들어온 그해 겨울...몸 속, 기어들면 영혼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은 염원을 비정하게 토로하기도 한다.

“제가 살아온 생의 조건은 어쩔 수 없이 자연과 맺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시절 가정이 풍비박산해 칠갑산 자락에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연명했죠. 한때 폐병환자들이 머물렀던 쓰러져 가는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뚫린 지붕 사이로 하늘이 내려앉고 별이 쏟아져 들어왔죠.”

산을 태우고 나무를 베어야만 살 수 있었기에 그는 자연과 갈등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연 속에서 공존의 지혜를 배웠다. 어느 비가 쏟아지는 날 뱀 한마리가 기어 들어와 꼬리를 틀었다. 그런데 뱀은 남의 집에 들어온 양 멧쩍은 듯 두꺼비와 지네, 쥐를 멀뚱히 바라보며 동정을 살피기만 했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이다.

“한때 가난이 절망스러워 중이나 돼 볼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중도 되지 못하고 죽지도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숲 속에서 정적을 깨며 온갖 새들이 울부짖

는 소리가 들려왔죠. 마치 새 울음소리가 노을빛에 튀어오르는 듯한 생명의 출렁임이 온몸을 휩싸더군요. 이때 비로소 생의 의지를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 분단문제 시적으로 형상화해

짧은 시절의 가난체험이 그의 시의 ‘원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면, 병영체험과 북극의 오지체험은 그의 시의 ‘근경’이다. 군사분계선에서 사선을 넘나들었던 기억은 <비무장 지대> 연작에 새겨져 있고, 알래스카대 교환교수로 북극에 머물던 중 북한 교포를 만났던 체험은 연작 <개마고원에서 온 친구에게>와 <백야>에 기록돼 있다.

“1990년경 북극에서 오로라를 보던 중 우연히 북한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와 만나면서 비무장 지대에서 우리를 갈라놓았던 분단의 거리가 북극에서는 잠시나마 사라져버렸죠. 그는 어느 날 말 없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개마고원 연작시는 그 당시의 체험을 바탕으로 민족적 자아를 되돌아본 것입니다.”

그는 주로 자연의 시인으로 부각됐지만, 그의 시적 지향점은 분단문제를 어떻게 시적으로 변주할 것인가에 놓여 있다. 그의 곡절 많은 생애가 자연스레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했던 것이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분단은 우리 민족의 생애적 조건과 심성을 왜곡하고 훼손하며 배반하는 ‘자연의 적’이기 때문이다. — 박천홍 기자